

85.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말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 어근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두 어근 사이에 'ㄴ'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표준발음법의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㉗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㉘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ㅇ'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ㅇ]으로 발음한다.

㉗은 앞 어근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안 올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㉘는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ㄴ, ㅁ'으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 혹은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모음 'ㅇ'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ㄴ'이 첨가되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들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빨랫돌[빨래돌 / 빨랜돌], 옷깃[옷긴],
홀이불[혼니불], 뱃머리[뱌머리], 깻잎[깻넉]

- ① '빨랫돌'은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㉗의 예로 볼 수 있어요.
② '옷깃'은 합성 명사이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㉗의 예로 볼 수 있어요.
③ '홀이불'은 'ㄴ'의 첨가가 나타나지만, '홀-'이 접사이므로 ㉘의 예로 볼 수 없어요.
④ '뱃머리'는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ㅁ'으로 시작하는 음운 환경에서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되므로 ㉘의 예로 볼 수 있어요.
⑤ '깻잎'은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ㅇ'로 시작되는데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ㄴ'이 첨가되므로 ㉘의 예로 볼 수 있어요.

8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 네 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음운이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

- ㉠ 날날이-ㄱ날: 나치]
㉡ 뉘두리-ㄱ넉두리]
㉢ 입학식-ㄱ이파식]
㉣ 첫여름-ㄱ천녀름]

- ①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탈락이다.
③ ㉠에서 발음된 'ㄱ'과 ㉢에서 발음된 'ㅇ'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된 것이다.
④ ㉠에서 'ㄷ'이 'ㄴ'으로, ㉢에서 'ㅅ'이 'ㄴ'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같다.
⑤ ㉠에서 'ㄱ'이 'ㄱ'으로, ㉢에서 'ㅅ'이 'ㅅ'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

87.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선생님: 음운 변동은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 두 개의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첨가가 있습니다.

- 다음 '잡일'과 동일한 음운 변동 과정이 일어나는 단어는 무엇 일까요?

잡일 → [잡닐] → [잠닐]
첨가 교체

- ① 법학[버팩] ② 담요[담요] ③ 국론[궁논]
④ 색연필[생년필] ⑤ 한여름[한녀름]

88.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농고[노코], 낱던[나턴], 쌓지[짜지]
㉡ 당소[다쏘], 종소[조쏘]
㉢ 농논[논논], 쌓네[짚네]
㉣ 얹논[안논], 많네[만네]
㉤ 낱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대[짜이다]

- ① ㉠을 보니,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이 오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는군.
② ㉡을 보니, 받침 'ㅎ' 뒤에 'ㅅ'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군.
③ ㉢을 보니, 받침 'ㅎ'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는군.
④ ㉣을 보니, 받침 'ㄴ'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
⑤ ㉤을 보니,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

[2018년 11월 1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

89. <보기>를 바탕으로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의 교체는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두 음절이 인접한 경우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앞말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와 만나는 상황에서 음운이 교체될 때, 발음의 결과 ㉢앞의 음운만 변한 경우나 ㉣뒤의 음운만 변한 경우도 있지만 ㉤두 음운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

- ① '마천루[마철루]'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② '목덜미[목떨미]'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③ '박람회[방남회]'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④ '쇠붙이[쇠부치]'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⑤ '땀받이[땀바지]'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2018년 11월 2학년 학력평가 13번 문제]

90. <보기>의 ㉠~㉤에서 설명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긴다.
-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 ㉢ 두 개의 음운 중 한 음운이 없어진다.
- ㉣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다.

- ① ㉠: 설날[설:랄], 한여름[한녀름]
- ② ㉡: 놓아[노아], 없앨[업:썰]
- ③ ㉢: 앓히대[안치대], 끓히대[끄리대]
- ④ ㉣+㉡: 구급액[구:급낙], 물엿물[물:엿]
- ⑤ ㉣+㉢: 읊조리대[읍조리대], 꽃꽂히대[꽃꾸타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반모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가 있다. 현대 국어에서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어간 '피-'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피어'가 [피어]로 소리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 어미에는 'ㅣ'계 반모음인 'ㅣ'가 첨가된다. 어미 '-어'에 'ㅣ'가 첨가되어 '되어[되여]', '줘어[줘여]'로 발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어간이 'ㅣ, ㅚ, ㅟ'로 끝날 때 어미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 표기할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해야 한다. 한편 '피어'는 [피:]로 발음되기도 한다. '피+어→[피:]'의 경우처럼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현상을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반모음화는 반모음과 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의 경우 단모음 'ㅣ'가 소리가 유사한 반모음 'ㅣ'로 교체된 것이다. [피:]와 같이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도 규범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15세기 국어 자료에서도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5세기에는 표음적 표기를 지향했기 때문에 문헌의 표기 상태를 통해 당시의 음운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데,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표기들이 관찰되는 것이다. 어간 '쉬-'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쉬어'로 표기된 사례나 어간 '흐리-'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흐리어'로 표기된 것은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사례로 생각된다. 여기서 '쉬어'는 현대 국어의 [피어]와는 다른 음운 환경에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것인데, 15세기에는 'ㅚ' 표기가 'ㅚ'와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ㅣ, ㅚ, ㅟ, ㅠ, ㅡ' 표기도 'ㅚ'와 마찬가지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쉬어'는 ㉠ 'ㅣ, ㅚ, ㅟ, ㅠ, ㅡ'가 이중 모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경우 반모음 'ㅣ' 뒤에서 일어난 반모음 첨가의 사례인 것이다. 이와 달리 어간 '꾸미-'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꾸미어'로 표기된 경우는 현대 국어의 [피:]처럼 ㉡ 어간이 'ㅣ'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난 반모음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 국어에서 체언 '바' 뒤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을 때 '배'로 표기된 사례도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

* 표음적 표기: 발음 형태대로 적는 표기 방식.

[2019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

9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에서 '피어'를 [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② 현대 국어에서 '피어'를 [피:]로 발음할 때는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다.
- ③ 현대 국어에서 '피어'에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도 '피어'라고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15세기 국어의 'ㅚ' 표기는 단모음 'ㅚ'와 반모음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⑤ 15세기 국어의 체언 '바'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배'로 표기된 사례에서는 체언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

92. <보기>의 ㉠~㉣ 중 윗글의 ㉦과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15세기 국어 자료 (현대어 풀이)	밑줄 친 부분의 음운 변동 과정
㉠ 내 이를 爲嵬혀야 (내가 이를 위하여)	나 + 이 → 내
수비 ㉡ 니겨 (쉽게 익혀)	니기 + 어 → 니겨
빚 바다로 ㉢ 괴여 (배의 바닥으로 기어)	괴 + 어 → 괴여
짜해 ㉣ 디여 (땅에 거꾸러져)	디 + 어 → 디여

	㉦	㉧
①	b	a
②	c	b
③	c	d
④	d	a
⑤	d	c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ㄱ, ㄷ, ㄴ’으로 교체되고,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ㄷ, ㅌ’이 ‘ㅌ,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용언 어간 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과 ‘ㄱ, ㄷ, ㅌ’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데 이를 통해 용언 어간 말음 ‘ㅎ’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돌(돌)’, ‘나라(나라)’와 같이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히’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ㅎ’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아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다.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야 체언 말음 ‘ㅎ’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2019년 3월 3학년 모의고사 11번 문제]

9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뫼[한목]’을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② ‘농기[노기]’를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③ ‘꿀지[꿀치]’를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④ ‘값할[가팔]’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⑤ ‘맛힌[마친]’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2019년 3월 3학년 모의고사 12번 문제]

94. [A]를 참조하여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목표]

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하늘’에 대해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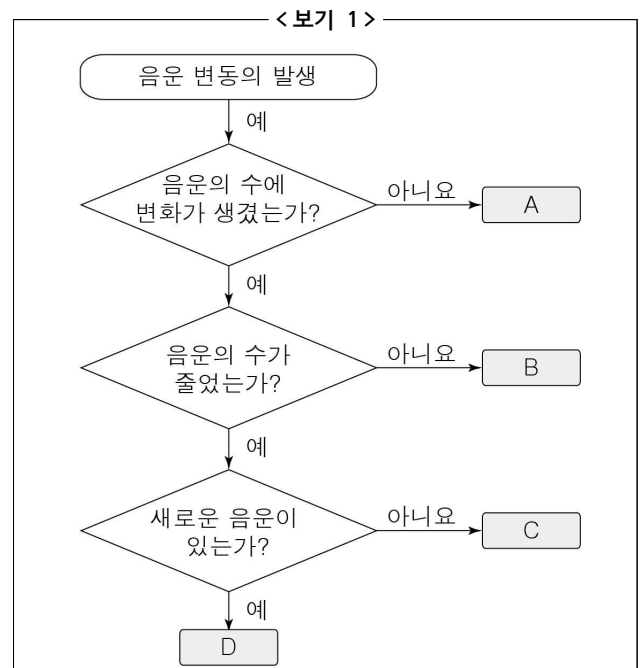
[중세 국어 자료]

- ㉠하늘히 믅속물 뉘우시니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
- ㉡하늘 光明中에 드러 (하늘의 광명 가운데에 들어)
- ㉢하늘 섬기습듯 ㅎ야 (하늘 섬기듯 하여)
- ㉣하늘토 뉘며 (하늘도 움직이며)
- ㉤하늘과 싸파를 니르니라 (하늘과 땅을 이르니라)

- ① ㉠에서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없다.
- ④ ㉡와 ㉢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와 ㉢에서 체언에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 ‘과’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 3학년 모의고사 14번 문제]

95. <보기 1>의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2>

- 그는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
- 그녀는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 그는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났다.
-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 집이 추워서 오래된 ㉤난로에 불을 지폈다.
-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올는 경우가 있다.

	A	B	C	D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